



naboo 재정경제 아카데미

한국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2024. 7. 4. 목 | 10:00~12: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국회예산정책처  YouTube 동시진행



NABO 재정경제 아카데미

한국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2024. 7. 4. 목 | 10:00~12: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국회예산정책처  YouTube 동시진행

목 차

한국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9
----------------------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29
----------------------	----

한국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한국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

최영일 과장

NABO 재정경제 아카데미

2024. 7. 4.

[한국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차 례

- 1)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개요
- 2) 세계경제 여건
- 3) 최근의 국내경제 여건
- 4) 재정운용과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
- 5)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 / 26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개요

경제전망 주기

경제전망 주기

- 1년에 두 차례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월)
- 2024년 경제전망 (2024.3월 수정전망)

경제전망의 목표

- 국회예산정책처 **고유의 시각**을 담아 경제상황을 평가
- 중기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판단의 **독자적인** 준거를 마련
-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 주요 경제현안 점검, 연1회
- **경제동향** ⇒ 경제동향을 파악과 현안 분석, 격월(짝수 달)

2 / 26

경제전망 체계의 특징

(특징) 지출 / 생산 / 분배 / 성장(잠재GDP)

- 국민소득 삼면 등가원칙을 경제전망에 적용
 - [지출]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지출 GDP
 - [생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생산 GDP
 - [분배]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등 분배 GDP
 - [성장] 잠재GDP와 구성요소(노동, 자본, 생산성)
- ⇒ 국민경제에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를 시도

3 / 26

2024년 경제전망(2024.3월 발표)

전망대상: 실질GDP와 구성항목,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명목GDP

[NABO 2024년 지출 부문별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2.6	0.9	1.8	1.4	2.4	2.1	2.2
민간소비	4.1	3.1	0.6	1.8	1.2	2.2	1.7
정부소비	4.0	2.5	0.0	1.3	1.2	1.3	1.2
건설투자	-2.8	1.8	0.8	1.3	-2.4	-2.6	-2.5
설비투자	-0.9	5.3	-3.9	0.5	2.1	4.1	3.1
자식재산생산물투자	5.0	2.9	0.3	1.6	2.4	3.2	2.8

총수출	3.4	-0.9	6.9	3.1	7.2	4.5	5.8
총수입	3.5	4.4	1.9	3.1	4.2	3.7	3.9
경상수지(억달러)	258	11	343	355	286	274	560
상품수출(통관)	6.1	-12.4	-2.3	-7.5	9.8	7.1	8.4
상품수입(통관)	18.9	-7.8	-16.4	-12.1	-2.7	10.2	3.5
GDP디플레이터	1.3	0.9	3.2	2.1	3.6	2.0	2.8
소비자물가	5.1	3.9	3.3	3.6	2.8	2.4	2.6
명목 국내총생산(GDP)	3.9	1.8	5.0	3.4	6.1	4.1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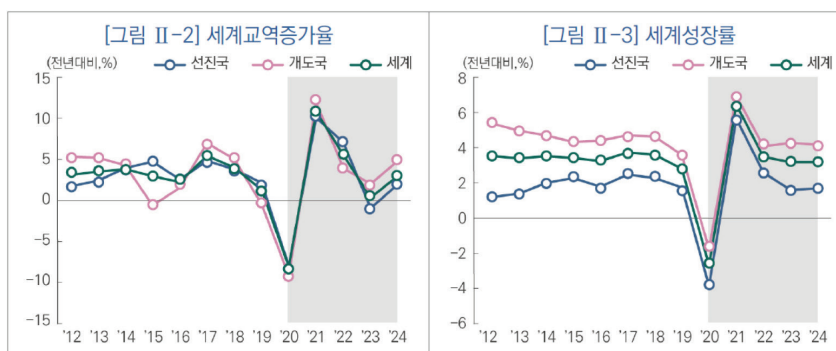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4 / 26

세계경제 여건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증가율

- 경제전망의 중요한 전제
-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
- IMF, World Bank,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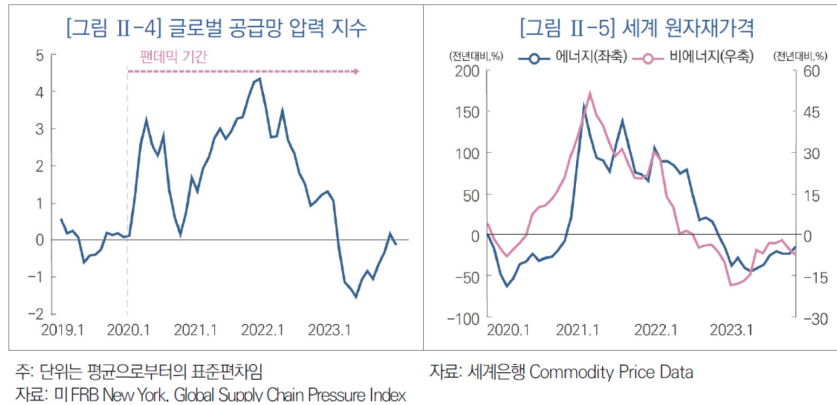


주: 2024년은 IMF의 WEO의 2024. 4월 기준
 자료: IMF WEO database(2024. 4월 기준)

5 / 26

글로벌 공급망 압력과 세계 원자재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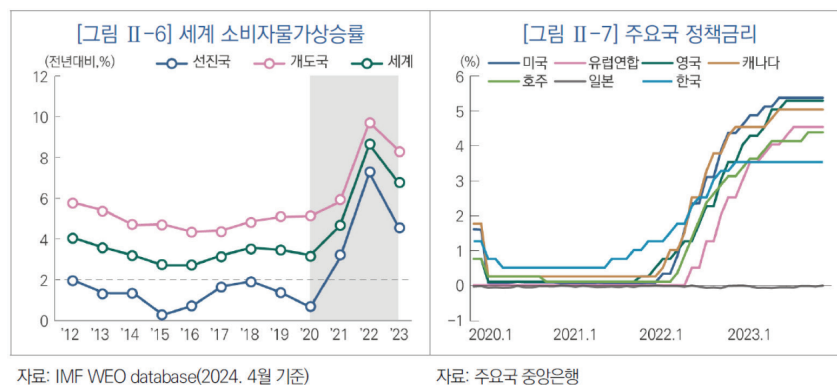
- 수출여건과 수입 및 수입물가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공
- 2023년에는 공급망 교란이 진정되고 원자재가격도 하향 안정



6 / 26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주요국 정책금리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기조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으나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편**



7 / 26

전망의 주요전제

(단위: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세계 경제 성장률	3.3	2.9	2.8
- IMF(2024.1)	3.5	3.1	3.1
- World Bank(2024.1)	3.0	2.6	2.4
- OECD(2024.2)	3.3	3.1	2.9
세계 교역량 증가율	5.5	0.6	2.8
- IMF(2024.1)	5.2	0.4	3.3
- World Bank(2024.1)	6.0	0.2	2.3
- OECD(2023.11)	5.2	1.1	2.7
국제유가(USD/bbl) ¹⁾	97.1	81.0	79.0
- IMF(2024.1)	39.2	-16.0	-2.3
- World Bank(2024.1)	41.8	-16.7	-2.5
기타 원자재가격	9.3	-8.0	-2.0
금리(국고채 3년물) ²⁾	3.2	3.5	3.0

주: 1)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유 평균 기준

2)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 국제기구 최신 전망을 참고
- 전제를 명확히 밝혀 전망의 투명성을 제고
- 세계경제 성장률, 교역증가율, 국제유가, 기타 원자재가격,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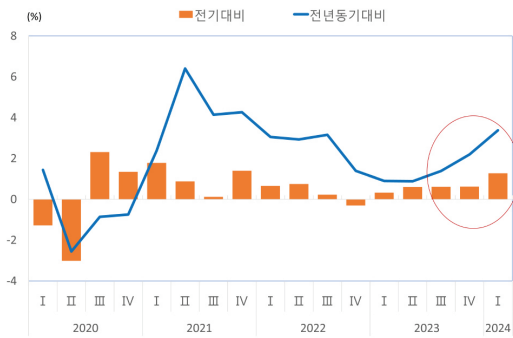
8 / 26

최근의 국내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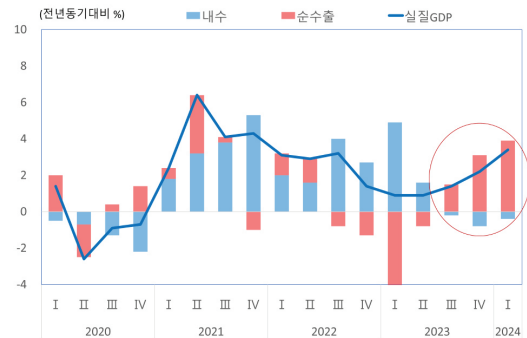
최근의 국내경제 여건

- 2023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순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
-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

실질GDP 성장률



내수와 순수출의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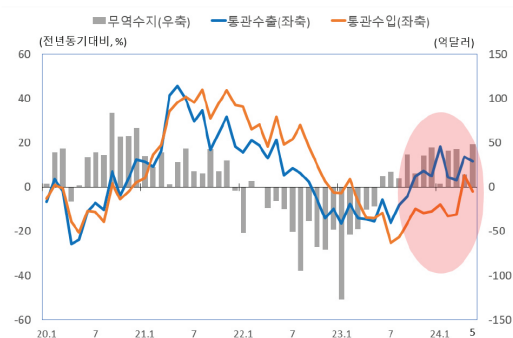


9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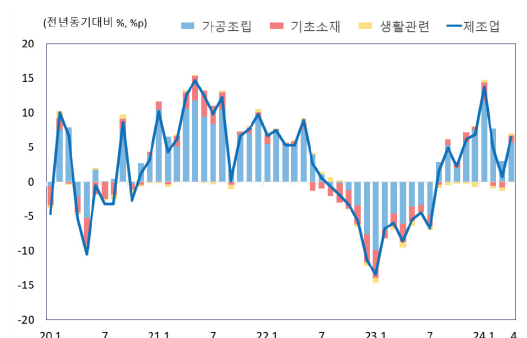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른 회복세

-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며 제조업 생산이 동반 증가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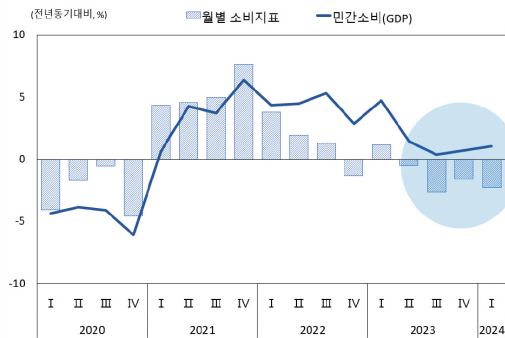


10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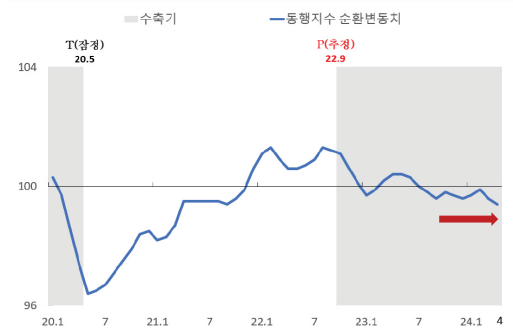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둔화

- 경기는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제자리걸음

소비지표와 민간소비(GDP)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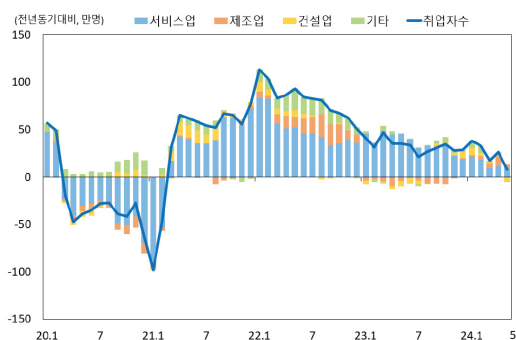


1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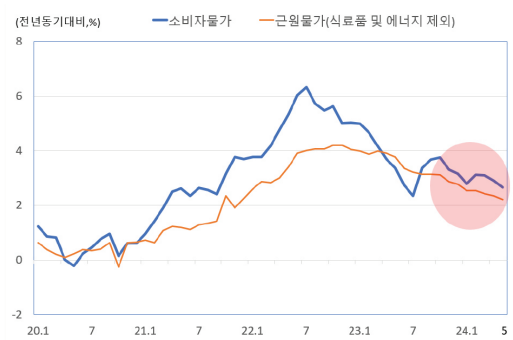
고용은 회복 흐름이 약화, 물가는 하향 안정 움직임

-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내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진 2023년 하반기 이후 축소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오름세가 진정되며 하향 안정되는 모습

취업자 수 증감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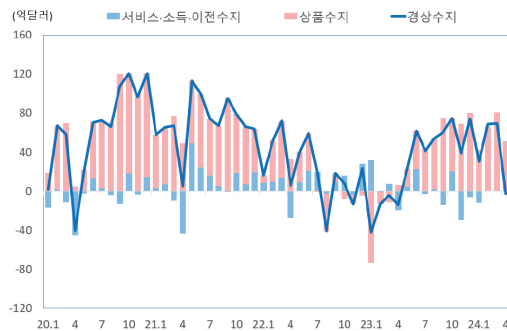


12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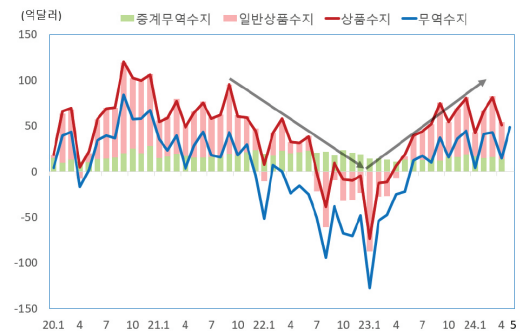
수출 회복과 함께 경상수지도 개선

-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개선 움직임을 지속

경상수지 추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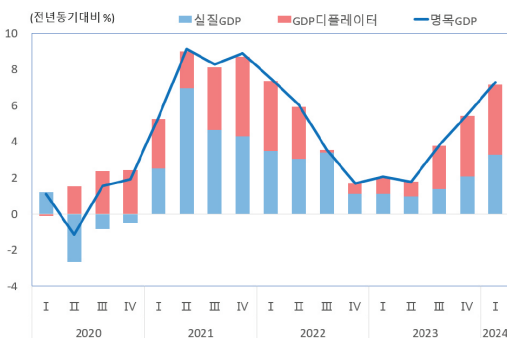


13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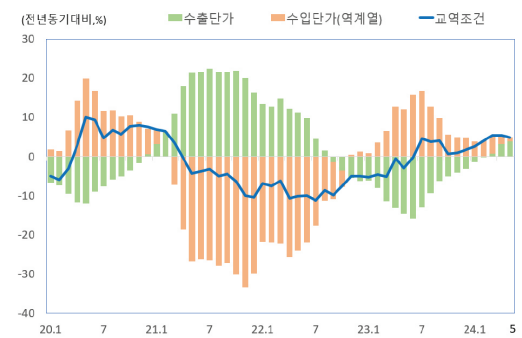
명목GDP는 2023년 하반기 5% 깜짝 성장

- 수입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 반도체 등 주력 제품 가격 회복으로 교역조건이 개선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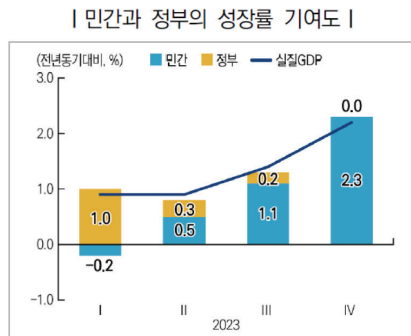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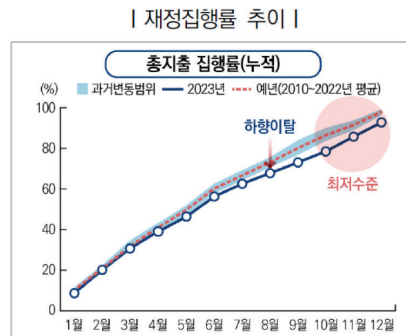
14 / 26

2023년 정부부문의 GDP성장 기여도는 0.3%p

- 세수 여건 악화로 재정집행률이 하락
- 지방 정부 등에 대한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지출이 크게 감소



자료: 한국은행



주: 재정집행률 = 집행액/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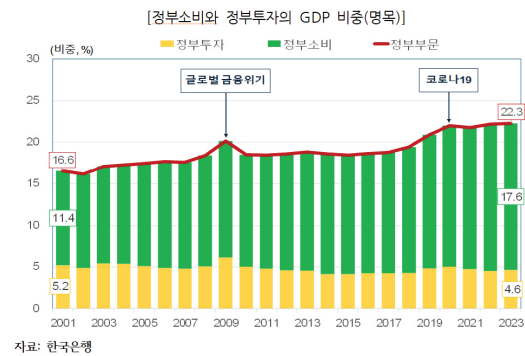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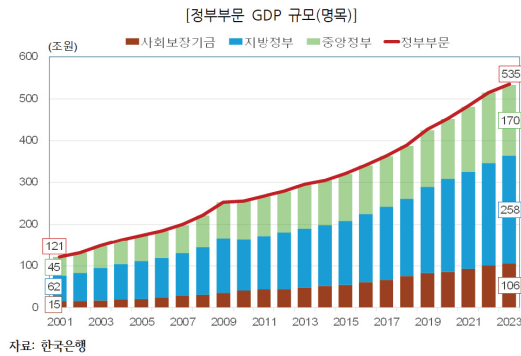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15 / 26

재정운용과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꾸준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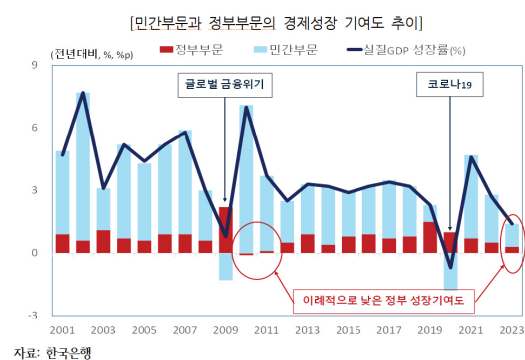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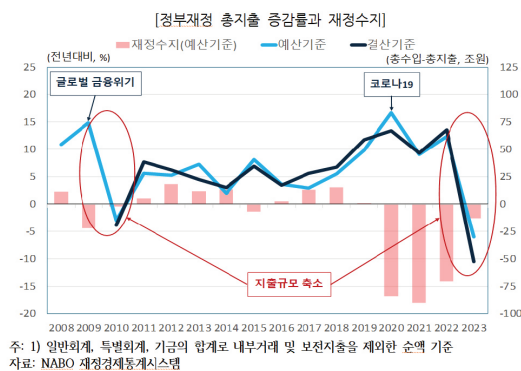
- 정부부문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
- 정부소비 중 사회보장적 지출 확대의 영향



16 / 26

총지출 증가율 하락은 정부부문 성장기여도 하락을 초래

-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2010년과 2023년 총지출을 축소
- 정부부문 성장기여도가 이례적인 수준까지 하락



17 / 26

2023년 세수결손 여파로 총지출이 축소

- 총지출이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및경상이전을 중심으로 축소
- 지방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크게 감소

[2023년 중앙정부 지출규모¹⁾의 변화]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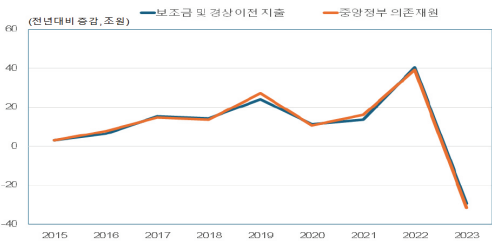
연 도	지출규모	경상지출 (재화 및 용역)	(이자지급)	(보조금 및 경상이전)	자본지출
2022(A)	619.0	581.9	89.8	18.5	473.7
2023(B)	554.6	518.5	90.4	22.4	405.7
증감(B-A)	△64.3 (△10.4)	△63.4 (△10.9)	0.6 (0.7)	3.9 (21.0)	△67.9 (△14.3)

주: 1) 상세내역 파악을 위하여 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통합재정수지 자료(결산기준)를 이용

2) ()내는 2022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중앙재정 경상이전지출¹⁾과 지방재정 수입 중 의존재원²⁾ 증감 추이]



주: 1) 중앙재정 지출 중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지출

2) 일반재정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지방교육재정 지방교과교육부담금(중앙정부) 합계

자료: 중앙정부 결산자료(dBrain)와 지방정부(순계) 및 지방교육청 최종예산 자료(지방재정365 및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8 / 26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국내 경제여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물가여건 그리고 재정여건을 진단해 본다.

#잠재성장률 #물가여건 #재정여건

글로벌 경제 질서 대응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역과 우리나라 수출의 관계,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을 모색해 본다.

#세계교역 질서 #에너지 전환

저출산·고령화 대응

다가올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충과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을 분석해 본다.

#저출산 #인구절벽 #정년연장 #경제활동인구

투자과 생산성 확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본다.

#투자자회 #노동생산성

미래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온라인플랫폼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상황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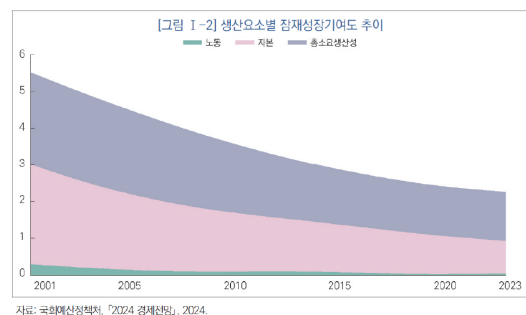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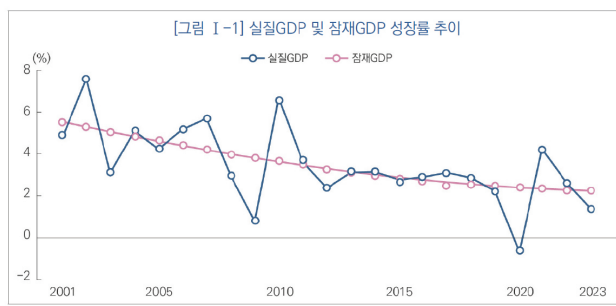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전력공급 #온라인플랫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2024.6월말 발간예정)

19 / 26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지속성장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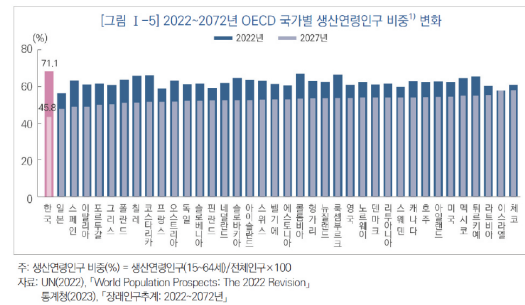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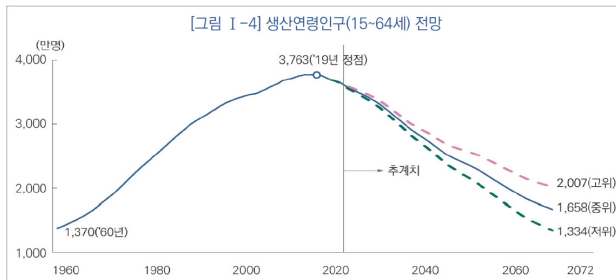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지속
- 노동, 자본, 생산성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



20 / 26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4-64세)** 인구가 빠르게 감소
- OECD 국가중 2022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2072년 가장 낮은 나라**가 될 예상



21 / 26

글로벌 경제질서 대응

[교역]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 여건과 우리 수출

- 팬데믹 이후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과 세계교역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상
- 수출시장 다변화와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
- 통상협력 강화와 기업의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필요
-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전략 수립이 긴요
-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 에너지 전환 관련 이해관계 조율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성 향상,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

22 / 26

저출산 고령화 대응

[고용]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예상
(2023년 3,657만명 → 2050년 2,445만명)
-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무정년 65세
연장 등의 정책적 방안을 고려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10~20만명
정도의 추가 노동력 확보가 가능

[인구] 출산율 반등 요인의 모색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주요국 출산율 변화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저출산 및 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모색
- 사교육, 근로시간, 남성의 가사노동 부담,
늦은 출산연령, 정규직 제도 등을 검토

23 / 26

투자과 생산성 확대

[투자 활성화] 투자의 구조적 특징과 당면 과제

- 양질의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
-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투자의 특징 분석을 분석하여
균형감 있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생산성 확충] 노동생산성 추이와 제고 방안

- 그동안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성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서비스업은 정체
- 지속성장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을 고민

24 / 26

미래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5.1%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

[산업기반 시설]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첨단산업 활성화는 지속가능 성장의 밑거름
- 원활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
-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전력공급 기반시설 구축 사례를 검토하여 선결조건을 식별

25 / 26

미래경쟁력 강화

[온라인플랫폼] 온라인쇼핑의 성장과 영향

-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유통업의 상품구매, 배송, 고객관리 등에 첨단기술이 접목
- 유통업 혁신을 위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 여건과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은 높지 않은 상황
- 온라인쇼핑의 세계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26 / 26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

최영일 과장

yi.choi@assembly.go.kr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장 허가형(hurgh@assembly.go.kr)

목차

- I. 인구동향
- II. 장래인구추계(2022~2072)
- III. 인구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IV.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 V.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인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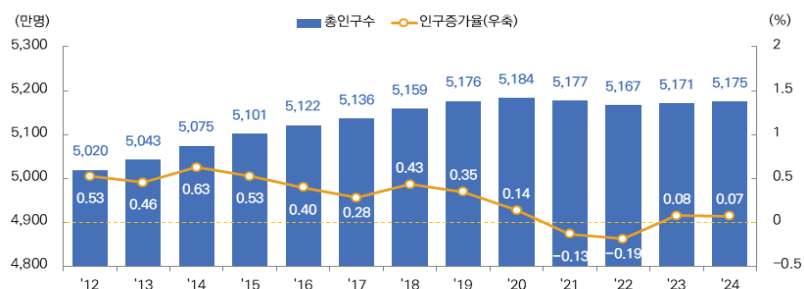


1. 2024년 대한민국 인구의 현주소

총인구

● 2024년 총인구는 5,175만명 (예상)

- 총인구 = 대한민국내 거주하는 내국인 +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
- 2020년 인구정점(5,184만명) 이후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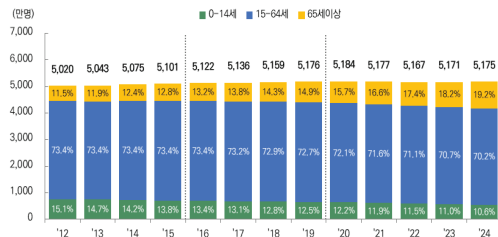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1. 2024년 대한민국 인구의 현주소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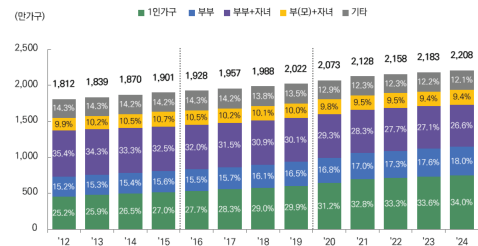
- 유소년(0~14세) : 생산연령인구(15~64세) : 고령(65세 이상) = 10.6% : 70.2% : 19.2%
- 2024년 총가구수는 2,208만 가구. 2012년 대비 21.9% 증가

총인구 및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총가구수 추이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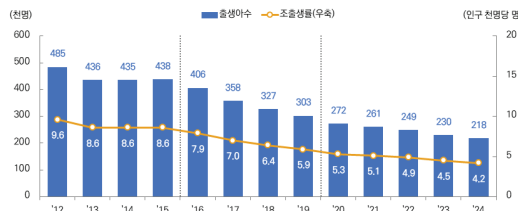
5

1. 2024년 대한민국 인구의 현주소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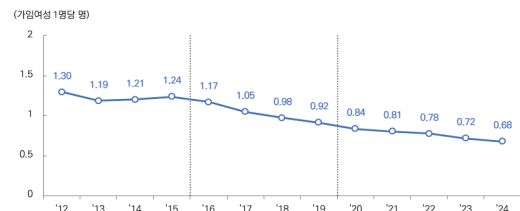
- 출생아 수는 출산율 하락 및 부모세대 인구감소로 빠르게 감소
 - 1970년 100.7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1만명을 기록하여 50년만에 1/4 수준으로 감소
 - 1971년 102만(정점) → 2000년 64만 → 2020년 27.2만 → 2023년 23만
 - 출생아 수는 1970~2000년 사이 연평균 약 1.9%의 속도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3.0%, 2010년 이후 감소율은 5.2%로 나타나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출생아수와 조출생률



주: 조출생률 =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합계출산율



주: 합계출산율 = 여성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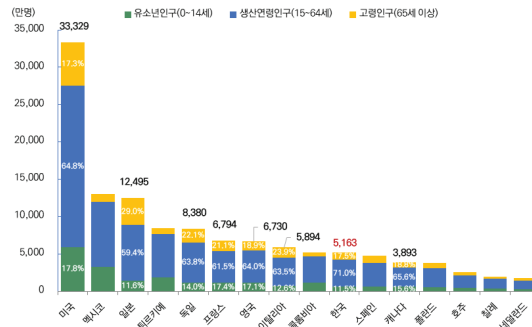
6

1. 2024년 대한민국 인구의 현주소

국제비교

● 총인구수 기준 OECD 중 10번째 (2022년)

- 1위 미국 3.3억명, 2위 멕시코 1.3억명, 3위 일본 1.25억명
- 한국은 총인구규모로 OECD 중 10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원자료: OECD stats)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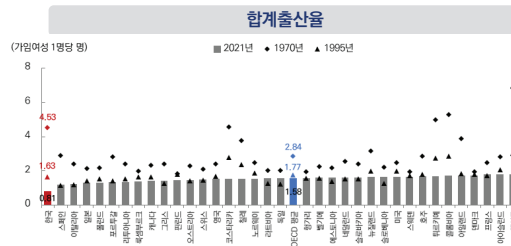
7

1. 2024년 대한민국 인구의 현주소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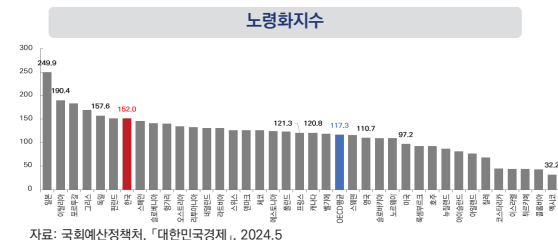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 한국의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이하)은 스페인(1.19명), 이탈리아(1.25명), 일본(1.3명)



● 노령화지수는 OECD국가 중 7위

- 노령화지수는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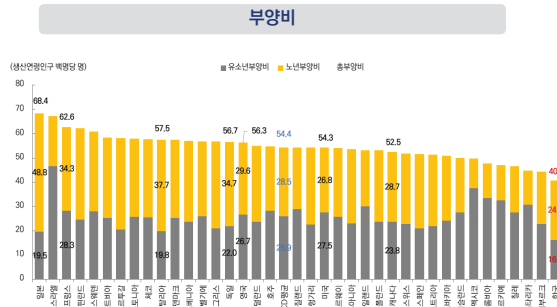
nabo

8

1. 2024년 대한민국 인구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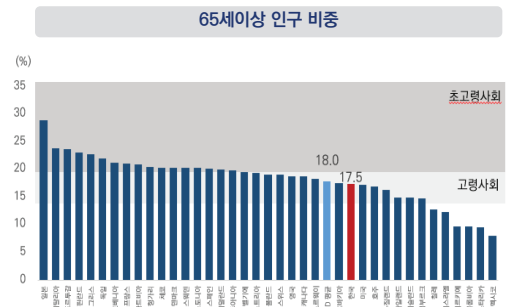
국제비교

- OECD 국가 중 총부양비는 가장 낮음 (2022년)
 - 1위 일본 68.4, OECD 평균 54.4, 한국은 4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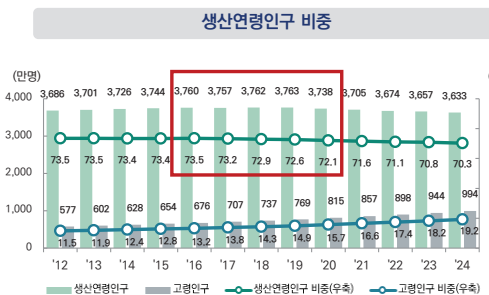
주: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층인구 비중 14%, 초고령사회는 20% 이상
자료: OECD stats

9

2. 인구감소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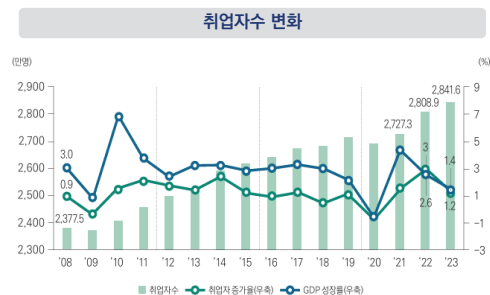
노동공급

- 끝나지 않은 1차 인구배당 (population dividend)
 - OECD 국가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3년 생산연령인구는 정점대비 2.8% 감소
 -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 (2020년 대비 2023년 취업자수는 5.6%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경제」, 2024.5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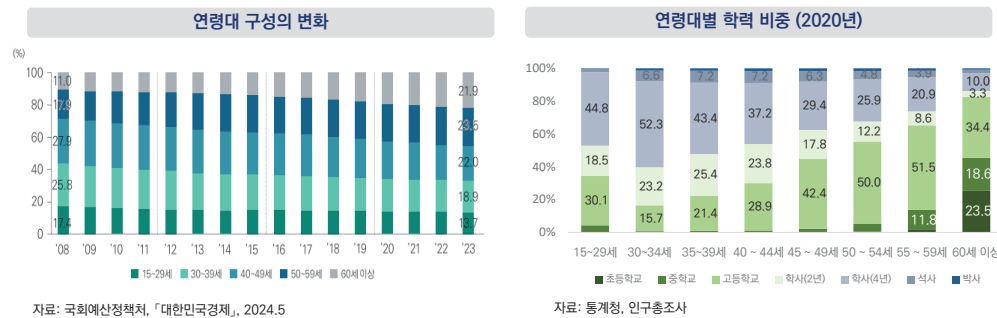
10

2. 인구감소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

생산성

● 2차 인구배당

- 주 생산연령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
- 2025년 50~54세 인구 중 전문대졸 이상이 55.3%, 대학졸업은 37.6%, 2030년에는 전문대졸 이상이 69.9%, 대졸이상이 46.1%



nabo

11

3. 인구감소. 정말 문제인가

● 주장1. 인구감소가 저성장의 원인이다

- 인구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다 $Y = F(A, L, K)$

● 주장2. 인구감소는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 가능하다

- 높은 수도권 집중과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인구감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 인구가 줄면 경쟁도 완화되고 여유가 생겨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문제는 속도

- 인구감소와 적응의 속도
- 인구감소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음 ⇒ 지역별, 업종별, 소득수준별
- 자동화 등의 기술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인력과 자원 필요
- 세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 필요

nabo

12

3. 인구감소. 정말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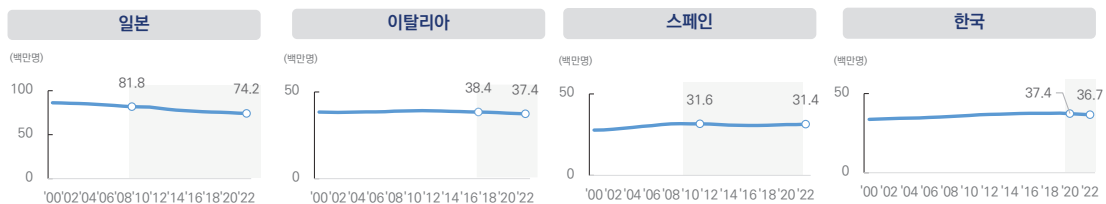
주요국 대비

-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난 국가

- ▶ 이탈리아(1993년), 일본(1995년), 독일(1998년), 그리스(2002년), 포르투갈(2005년), 네덜란드(2010년), 스페인(2010년), 핀란드(2010년), 프랑스(2011년), 한국(2019년)

- 총인구 정점을 지난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변화

- ▶ 이탈리아(2017년 이후 $-0.5\%/yr$), 일본(2009년 이후 $-0.7\%/yr$), 그리스(2004년), 포르투갈(2009년), 스페인(2011년 이후 $-0.1\%/yr$), 한국(2020년 이후 $-0.9\%/yr$)



자료: UN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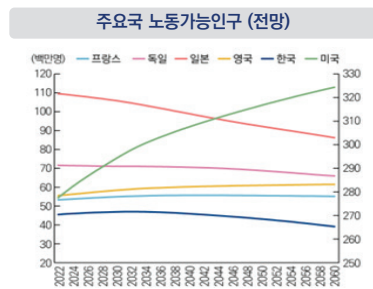
13

3. 인구감소. 정말 문제인가

주요국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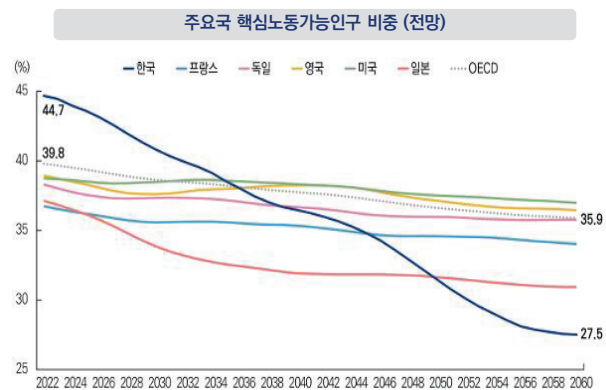
- 저출산 고령화는 OECD 국가 공통이지만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 ▶ 핵심노동가능인구(25~54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경제전망 III」, 2024.3 (원자료: UN 인구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nabo



14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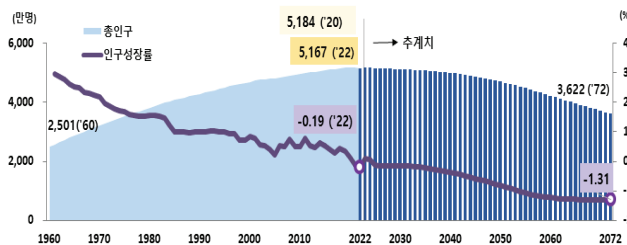
장래인구추계(2022~2072)

장래인구추계(2022~2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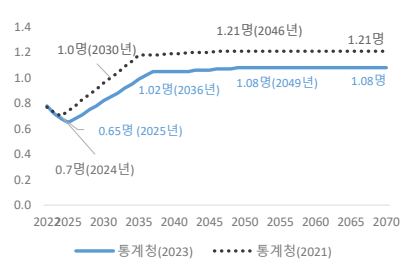
총인구

- 총인구는 2072년에 2020년(5,184만명) 대비 30% 감소. 1977년 수준인 3,622만명
 - 인구는 2025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0.16% 감소하며 이후 감소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연평균 1.31% 씩 감소
 - 합계출산율은 2025년 저점(0.65명) 후 1.02명(2036년), 1.08명(2049년)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1960~2072)



합계출산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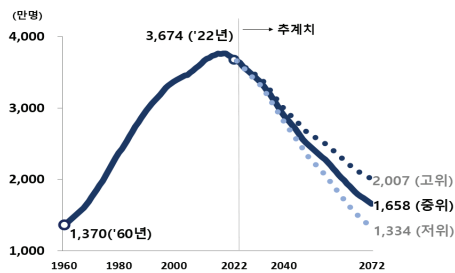


장래인구추계(2022~2072)

인구구조 변화

-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58만명으로, 2022년(3,674만명)의 45.1%
 - 2022년과 2072년의 변화: 생산연령인구 비중(71.1% → 45.8%), 고령인구 비중(17.4% → 47.7%)
 - 유소년인구 비중(11.5% → 6.6%), 중위연령(44.9세 → 6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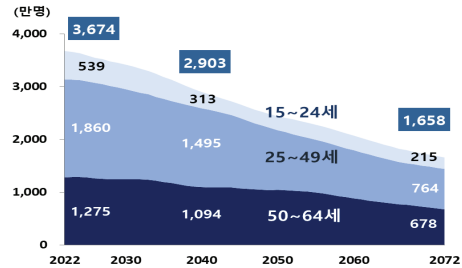
생산연령인구 (1960~207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 2023.12

nabo

생산연령인구 연령대별 구조 (2022~2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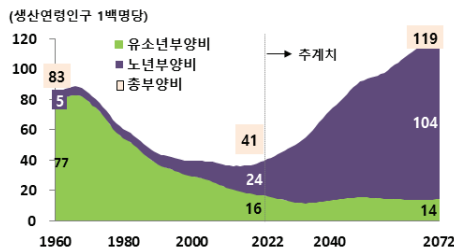
17

장래인구추계(2022~2072)

부양비

- 2072년 총부양비는 119명으로 2022년의 41명에서 2.9배 증가
 -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명에서 2072년 104명, 유소년부양비는 16명에서 14명
- OECD 국가 중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최저에서, 2072년 최고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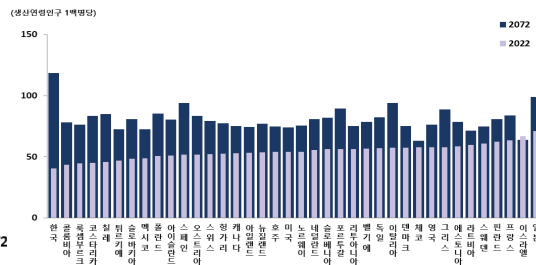
생산연령인구 (1960~207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 2023

nabo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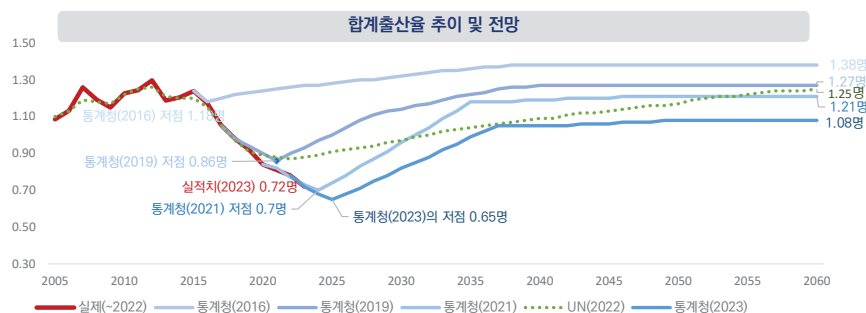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출산율 저점 전망

-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전망의 저점이 실적치를 따라 낮춰지고 있음
 - 통계청(2016)은 저점(2016년 1.18명) 이후 1.38명으로, 통계청(2019)는 저점(2021년 0.86명)이후 1.27명으로, 통계청(2021)은 저점(2024년 0.7명) 이후 1.21명으로 상승 전망
 - UN도 2021년 0.88명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



자료: 통계청,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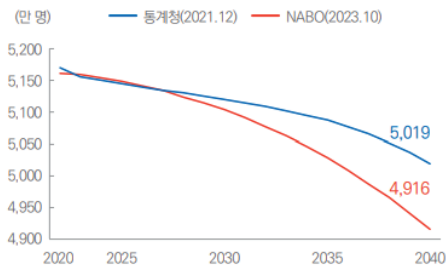
장기저출산시나리오의 인구추계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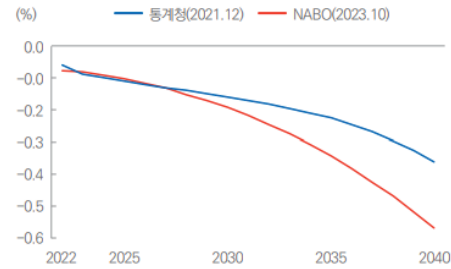
-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와 비교

➢ 장기저출산시나리오는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

총인구 전망(2020~2040년)



총인구 증가율



자료: 이소연,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출산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총인구는 어떻게 될 것 인가", 「NABO 경제동향」, 2023.10

nabo

21

장기저출산시나리오의 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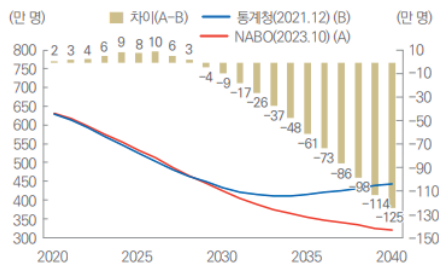
유소년 인구

- 장기저출산시나리오의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대비 49.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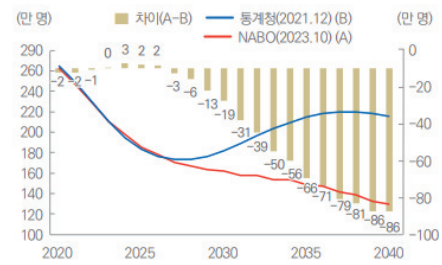
➢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영유아 인구(0~6세)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 130만명(-50.6%)으로 감소

유소년 인구 전망



영유아 인구 전망



자료: 이소연,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출산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총인구는 어떻게 될 것 인가", 「NABO 경제동향」, 2023.10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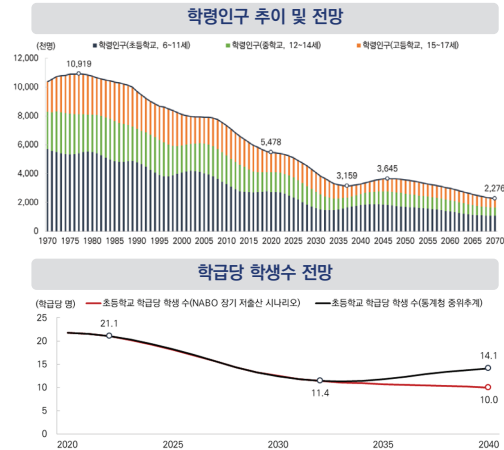
22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교육부문

- 출산율 하락은 6년 후 학령인구(6~17세) 감소로 교육부문에 가장 먼저 영향

- 통계청(2021) 중위추계 상 학령인구는 2037년에 316만명, 2070년에 228만명까지 하락할 전망
- 초등학교 학급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40년 학급당 학생수는 통계청(2021)은 14.1명이고, 장기저출산시나리오의 경우, 10.0명으로 감소



주: 1. 2022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 2023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 자료는 2022년의 학급 수(초등학교: 127천개)를 적용한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VII: 인구위기대응전략(2)」, 2023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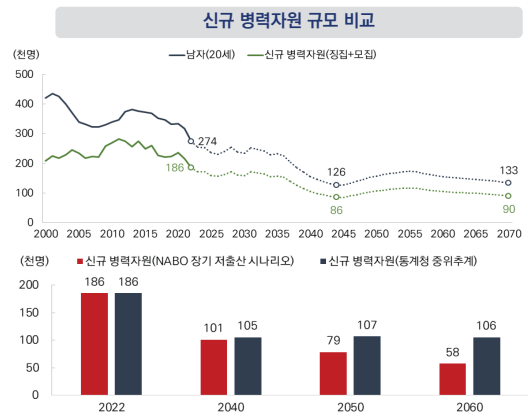
23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국방부문

- 출산율 하락은 20년 후 신규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질 전망

-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징집병과 모집병을 합산한 신규 병력자원 규모 감소
- 통계청(2021) 중위추계 상 신규 병력자원은 2022년 18.6만명에서 2044년 8.6만명(-53.8%)까지 낮아짐



주: 인구추계에 따른 신규병력자원 규모의 비교를 위해 2021년 20세 남성 인구수 대비 현역입영자 비율(67.78%)을 적용한 추정치로, 연도별 병력자원 전망은 추가 분석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VII: 인구위기대응전략(2)」, 2023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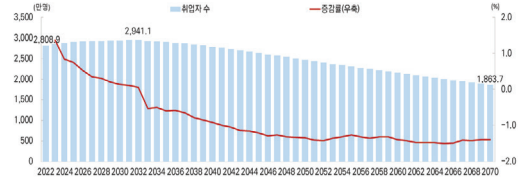
24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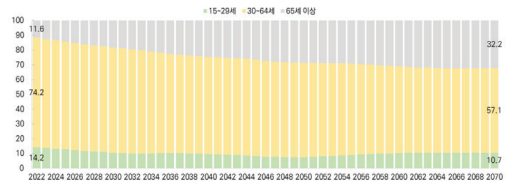
근로부문

- 출산을 하락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어
취업자수(감소)와 취업자 중 고령인구
비중(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
 - 통계청(2021) 중위추계 상 2070년 취업자수는
1,864만명으로 2022년의 66.3% 수준으로
전망
 - 고령자(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에
11.6%에서 2070년에는 3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취업자수 및 증감률 전망



취업자 연령구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 예산안분석서리
즈VII: 인구위기대응전략(2)」, 2023

nabo

25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납세부문

-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을 높일
전망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2020년)
 - 향후 인구고령화가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부담률 추이

기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OECD 평균	고령인구부양률	16.5	18.2	20.3	24.0	26.8
	국민부담률	35.4	35.0	35.6	36.2	37.3
	사회보장부담률	7.3	7.8	7.7	8.2	8.7
한국	고령인구부양률	6.5	8.3	12.2	17.3	21.8
	국민부담률	16.1	18.8	22.1	24.4	27.7
	사회보장부담률	0.3	2.5	4.5	6.2	7.8

주 : 고령인구부양률 =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
국민부담률 = 국민이 연간 납부한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보장부담률 = 사회보장부담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 예산안분석서리즈VII: 인구위
기대응전략(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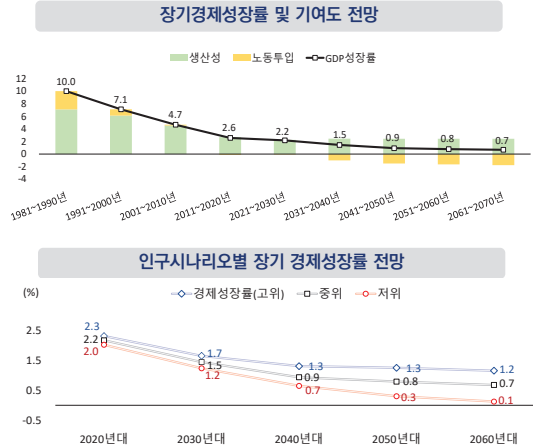
nabo

26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전망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확대
 - 2040년대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 이하
 - 저위시나리오의 경제성장률은 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
-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빠른 인구변화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에 대응할 필요



nabo

27

인구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기재정전망

-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총수입 및 총지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
 - 고령화는 총수입에 부정적 영향 (고령인구비중 1%p 상승 → 1인당 총수입 1.12% 감소)
 - 고령화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을 증가시킴 (고령인구비중 1%p 상승 → 1인당 지출 1.05% 증가)
- 고령화와 이에 따른 재정의 변화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

	1인당 총수입	1인당 총지출	1인당 의무지출	
			(복지분야)	
고령인구 비중 1%p 상승	1.12% ↓	1.05% ↑	1.49% ↑	2.32% ↑

주: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추정치이며, 제시된 값은 모두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VII: 인구위기대응전략(2)」, 2023

nabo

28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영향

세대간 영향

● 인구구조 변화가 이전지출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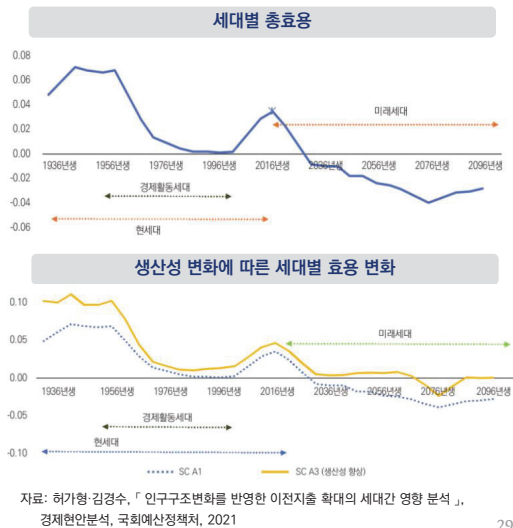
대한 정책모의 실험

- 2021~2035년 동안 매년 4조원의 이전지출(교육,보건부문)을 증가시키고 2041년부터 상환
- 단기적으로 총생산 증가, 상환시점부터 총생산 감소

● 출산율 상승 혹은 생산성 증가시, 미래세대의 효용도 증가할 수 있음

- 현세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중장기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해야

nabo



29

IV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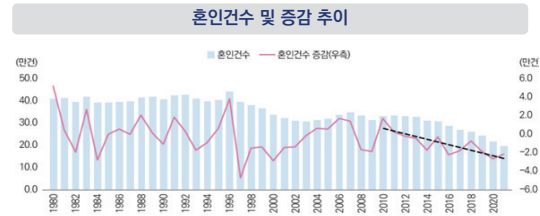


1. 저출산의 원인

근거리 요인

● 최근 혼인은 역대 최저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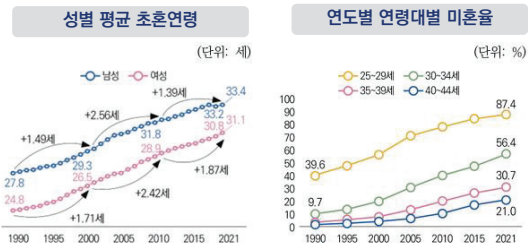
- 혼인건수는 젊은 층 인구수와 혼인율의 영향을 받으며, 2000년부터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고, 이들의 혼인율이 2010년 이후 급격히 하락



주: 검은색 점선은 2010년 이후 전년 대비 혼인건수 증감의 추세를 나타냄

●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율 상승

- 40~44세 미혼율은 1990년 1.3%에서 2020년 21%로 상승
- 학력별 구분시, 고졸자 미혼율은 2000년 3.6%에서 2020년 23.8%로 큰 폭 상승 (대학원졸 이상: 3.6% → 15.3%)



자료: 김상미·유근식,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2023년 경제현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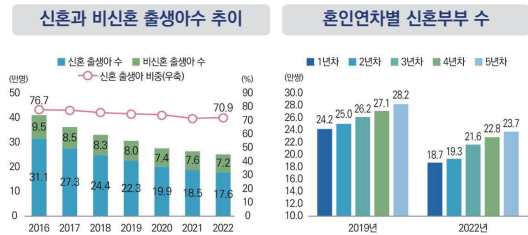
31

1. 저출산의 원인

근거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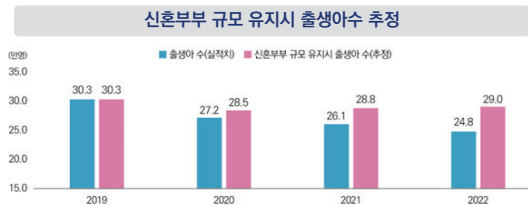
● 71%의 출생이 신혼부부(혼인 5년 미만)

- 신혼부부 수는 2019년 130.7만쌍에서 2022년 106.2만쌍으로 감소
- 젊은 세대의 1인가구 증가가 비혼 및 만혼 현상을 강화
 - 1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2.8%로 전체 가구의 46.7% 대비 16.2%p 높음



● 2019~2022년 출생아 감소분(5.5만명)의 77%(4.2만명)는 혼인감소의 영향

- 2019년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되었다면, 2022년 출생아수는 29만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



주: 1. 신혼부부 규모 유지시 출생아 수는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출생아수를 의미

2. 실적치 중 2022년의 값은 1~11월 누적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자료: 김상미·유근식,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2023년 경제현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

nabo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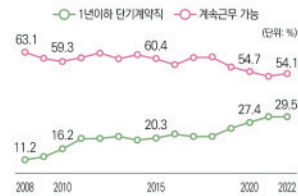
1. 저출산의 원인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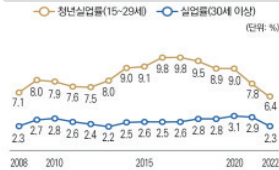
- 고용과 결혼 선택의 관계 (국회예산정책처, 2018)
 - 상용직인 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 4.35%p +
 -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 1.16%p +
 - 사업장 규모가 1,00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결혼확률 3.23%p+
 - 여성상용직은 임시/일용직 대비 결혼확률이 2.78%p +, 남성은 5.19%p +
- 정규직과 출산의 관계 (국회예산정책처, 2024)
 - 2015~2019년 기간 중 여성 정규직 취업자의 출산율은 0.14%p 증가
 - 여성의 정규직 비율 1% 증가시, 합계출산율은 0.036% 증가

자료: 김성용, "V. 인구: 출산율 변동요인의 모색",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

청년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



청년 및 30세 이상 실업률



주: 청년은 15~29세를 의미

자료: 김상미·유근식,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2023년 경제현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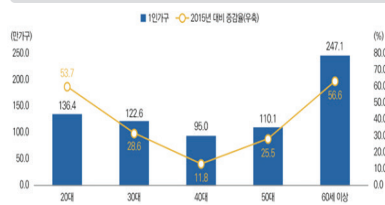
33

1. 저출산의 원인

혼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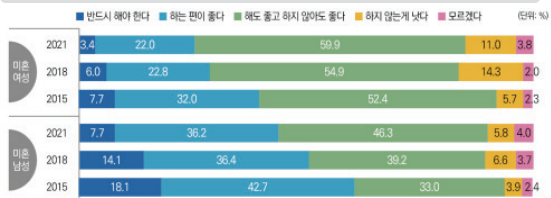
- 최근 20~30대의 1인 가구 규모가 크게 증가
 - 2021년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대비 6.2%p 상승했으며, 20대는 53.7%, 30대는 28.6% 증가
-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은 하락
 - '반드시 해야한다' 또는 '하는 편이 좋다' 는 응답은 여성의 경우 2015년 39.7%에서 25.4%로, 남성은 60.8%에서 43.9%로 감소

2021년 1인 가구 수 및 2015년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주: 미혼남녀의 연령은 2015~2018년도는 20~44세, 2021년도는 19~49세를 대상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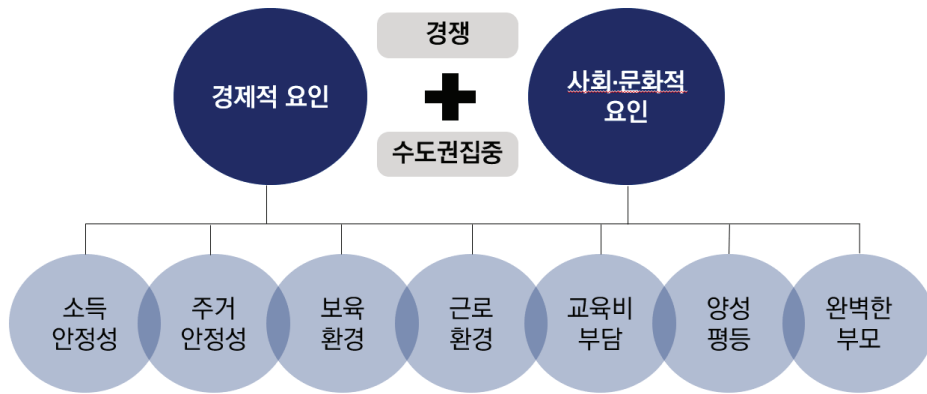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각년도

nabo

34

1. 저출산의 원인

원거리 요인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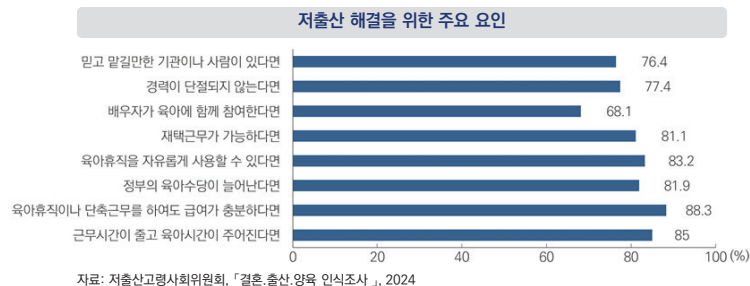
35

1. 저출산의 원인

설문조사

● 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5)

- 25~4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 (혼인) 22.8%는 결혼할 생각이 없음 (남성은 13.3%, 여성은 33.7%)
- (출생) 보육과 양육비의 부담
- (정책 선호도) 1세 이하 아이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1세 이상 아이 부모의 경우 유연근무와 근무시간 단축을 선호



nabo

36

2. 저출산 대응

재정지출

- 2006~2023년의 저출산 예산은 379조원

- 2023년 저출산 예산은 47조원(GDP의 2.1%)이지만, 직접적 관련성 기준으로 재분류시 23.5조원(GDP대비 1.05%)
- OECD 기준 한국의 가족분야 재정지출은 GDP의 1.5%로 평균(2.1%)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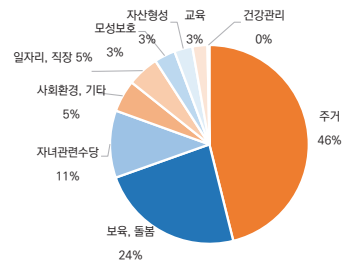
제1차~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출산·양육지원 및 환경조성 예산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2022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 분석」, 2023

nabo

저출산 예산의 구성(2022)



37

2. 저출산 대응

출산율 반등 목표 설정

-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3대분야 15대 핵심과제를 발표(6.19)
-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특별회계 및 사전심의 도입,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3	아빠 출산휴가 기간, 청구기한 및 분할횟수 확대	틈새돌봄 확대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4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결혼 특별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5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난임시술 대폭 지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6.19

nabo

38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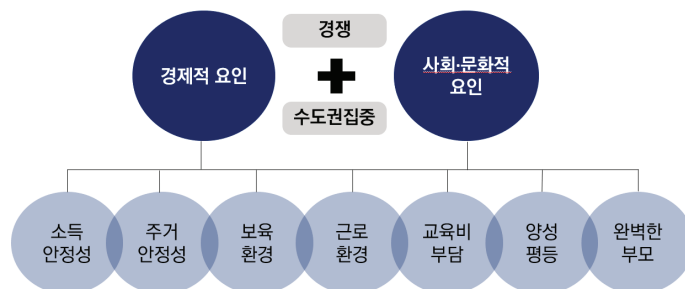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저출산 대응

구조적 접근

- 안정적 소득 확보와 유연한 근로 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활성화
- 양호한 양육 및 보육환경 조성
- 주거 안정성 확보
- 교육비 부담 경감
- 양성평등 실현
- 경쟁 압력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

No Silver Bullet



2. 저출산 사회 적응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계획 필요
 - 이미 줄어든 인구가 만들어낼 사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중장기 계획 필요
 - 장래인구추계상 외국인 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
- 합계출산율 하락이 야기하는 인구규모의 변화에 관심
 - 수요 전망에 분야별 특성 및 연령대별 인구 규모 변화 반영
- 주요국 대비 인구구조변화의 버퍼존(2030년 중반) 활용
- 민간부문 및 기업의 역할 필요
 - ESG – (S) 기업의 사회적 책임

nabo

41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psad@assembly.go.kr

발 간 일 2024년 7월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인구전략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4

naboo
재정경제
아카데미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